

자녀의 초경 경험을 통한 어머니의 초경 경험 재구성 : Parse의 연구방법 적용

권진숙* · 박시현** · 함옥경*** · 손민**** · 이은진***** · 이재연*****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만의 고유한 경험인 월경, 임신, 출산, 폐경의 일련의 사건들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여성의 중대한 사건이며 역사, 인종, 계급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여성 고유의 보편적인 경험이다(Noh, 1995). 대부분 여성이 경험하는 월경이라는 보편적인 경험도 초경이라는 첫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며, 이런 첫 경험인 초경은 여성이 자라면서 습득하게 되는 성 역할과 생활 양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Sung, 2006). 초경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9년에 12.4세였던 평균 초경 평균 연령이(Kim & Yoo, 2009) 2015년 11.7세로(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5) 낮아져 현재 대부분 학령후기 여학생은 초경을 경험한다.

초경 시작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사춘기가 시작되어 아동은 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Kim & Yoo, 2009). 특히 초경의 시기가 빠를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과 행동의 문제 및 우울과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Lee, 2012). 물론 초경 시작 전후 주위 사람의 반응에 따라 아동은 초경 경험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인지한다고는 하나(Cho & Moon, 2012), 대부분 초등학교생은 초경을 반갑지 않은 경험으로 초경 경험 전보다 경험한 후에 더 신체적 불편감과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Kwon & Park, 2019).

2007년 학교보건법 제9조의 제정으로 2009년도부터 보건수업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중 성교육을 위해 2015년 교육부의 주관으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도입되었다(Kim, 2016). 초등학교 성교육은 2차 성징을 포함한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뿐만 아니라 월경과 임신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하였고(Cho, Kim, Lee & Woo, 2001),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https://orcid.org/0000-0002-1949-8756>)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https://orcid.org/0000-0003-1808-345X>) (교신저자 E-mail: sh8379@cau.ac.kr)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1-9063-4020>)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3-4021-2051>)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https://orcid.org/0000-0003-4085-9664>)

*****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교사(<https://orcid.org/0000-0002-6474-8080>)

• Received: 2 March 2021 • Revised: 28 July 2021 • Accepted: 9 August 2021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Sihyun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Heuk-seok ro 84, Dong-jak gu, Seoul, 06974

Tel: +82-2-820-5737, Fax: +82-2-824-7961, E-mail sh8379@cau.ac.kr

현재 초경과 월경에 대한 학교 교육은 생리대 사용에 대한 일회성 교육이 대부분이며 그들이 겪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적응증진을 위한 교육내용은 없는 실정이다(Kang, 2018). 초경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모두 이에 대한 준비로 선행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성 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야 아동의 긍정적 성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나(Eum, 2004) 이 역시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후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는 어머니이다(Lim & Kim, 2013). 초등학생 경우 월경에 대한 지식을 주로 어머니에게 배우기에(Kim & Yoo, 2009), 어머니의 월경 태도는 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Hong, Kim & Ahn, 2008). Ha와 Chung (2008) 역시 어머니와 동성인 자녀 사이에서 가치관의 전이를 주장하며 어머니의 월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초경을 경험한 학령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지만(Hong, Kim & Ahn, 2008; Kwon & Park, 2019; Woo, 1996), 실제 자녀의 초경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Parse(2008)는 '인간되어감 이론'에서 인간의 지식과 신념, 태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구전되어 진다고 하였으며 이런 구전되어 전해지는 과정을 시간과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였다. 시간은 변화하며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고, 흐르는 강물이 앞에서 흘러가면 뒤따라서 가는 것처럼, 앞에서 일어난 다양한 현상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게 되며, 이런 모든 과정의 실제적 관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Parse, 2008). 따라서 자녀의 초경보다 먼저 경험한 어머니 세대의 초경 경험과 의미가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과정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초경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과정으로서 밝히는 것이 학문적 의의이다.

Parse에 따르면 '인간'은 독특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특정 상황 경험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실을 잘 구성해 내는 존재이며 선택한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Parse, Lee, Lee &

Go, 2002). '되어감'이란, 인간이 체험하는 개방적인 과정에서 인간과 우주의 상호관계를 함께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Parse, Lee, Lee & Go, 2002). 즉, '인간되어감 이론'은 인간이 다차원적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Parse, Lee, Lee & Go, 2002), 상황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는 지도자와 학습자로 서로 파트너가 되어 뚜렷한 경계가 없이 역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성한다.

Parse는 '인간되어감 이론'에서 3가지 원리를 끌어냈다(Kim & Kim, 2014; Parse, Lee, Lee & Go, 2002). 첫째, 의미화(meaning)는 다양한 차원에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순응과 불순응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상태를 언어화한다. 둘째, 공동 창조(rhythmicity)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패턴을 창조하며 이 과정에서 가능-제한, 노출-은폐, 연결-분리라는 역설적인 패턴으로 선택의 기회와 마주치게 된다. 셋째, 공동초월(transcendence)은 익숙한 상황과 새로운 견해가 통합되어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창조하며 재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을 적용하여 학령후기 자녀 초경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의 초경과 관련한 체험이 무엇인지, 특히 초경과 관련한 경험이 세대를 내려오면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의미가 만들어 가는지를 체험자의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자녀의 초경 경험을 통한 어머니의 초경 재구성 체험은 무엇인가'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이론(Parse, Lee, Lee & Go, 2002)을 바탕으로 건강을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되어 가는 생성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자녀의 초경경험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초경경험이 자녀초경을 경험한 후 그 체험의 의미와 구조가 어떻게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녀의 초경에 대한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거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수행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기초한 연구방법에 따라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 '추출-종합과정(extraction-synthesis)',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의 세 과정으로 수행되었다(Parse, 2011; Parse, Lee, Lee & Go, 2002).

2.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기준은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의 초경을 3년 이내에 경험한 어머니이다. 선정은 의도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 및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우선, 2018년 6월 17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D시의 지역 맘 카페에 연구참여 자 모집공고문을 업로드한 뒤,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 의사로 참여한 5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 주변에서 합당한 연구조건을 갖춘 대상자 5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소개한 5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44.3세이며, 참여자의 초경 시작 평균연령은 12.9세였다. 참여자 자녀의 나이는 평균 13세이며, 자녀의 초경 시작은 10세가

3명, 11세가 8명, 12세가 4명으로 평균연령은 11세로 나타났다 (Table 1).

3. 자료 수집 및 분석

1)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

'너와 나의 대화' 과정은 단순한 인터뷰의 과정을 넘어서 연구자가 참여자와 진정으로 함께 하면서 참여자의 진정한 체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Parse, Lee, Lee & Go, 2002).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와 인간적 유대 관계를 갖도록 방문 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락을 유지하였고, 인터뷰 전에 일상생활 관련 이야기로 서로 긴장을 푼 다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문서화 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너와 나의 대화를 위한 장소로는 참여자의 집이나 집 근처 조용한 카페 등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로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참여자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체현한 생생한 경험이 솔직하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어머니와 자녀의 초경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Table 1. Demographics of Study Participants

ID	Age	Occupation	Age of menarche	Menopause	Age of daughter	Daughter's age of menarche
1	43	office worker	13	No	14	10
2	46	housewife	12	No	12	11
3	43	housewife	13	No	14	12
4	38	college lecturer	13	No	11	11
5	41	college lecturer	14	No	15	11
6	45	nurse	10	No	12	11
7	45	housewife	14	No	12	11
8	42	housewife	16	No	13	12
9	48	housewife	14	No	13	12
10	52	housewife	14	No	11	10
11	38	housewife	12	No	12	12
12	43	teacher	14	No	14	11
13	50	teacher	11	No	16	11
14	44	teacher	13	No	13	11
15	46	nurse	11	Yes	13	10

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였고, 가능한 그 경험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충분히 그리고 세밀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초경 경험이 자녀의 초경 경험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생각나는 사건이나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참여자가 하는 얼굴표정이나 의성어, 손짓, 몸짓 등의 표현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할 경우 인터뷰 중간에 요청하였다. 너와 나의 대화는 참여자 당 1-3회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 대화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재구성 체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허락을 받은 후에 녹음하였으며, 녹취내용은 여러 번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워드프로세스로 전사하였다.

2) 추출-종합(extraction-synthesis)과정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 분석의 첫 과정은 참여자 15명의 이야기를 통해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부분을 종합하는 추출-종합과정이다. 이를 위해 첫째, 참여자와의 대화 중 의미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즉, ‘너와 나의 대화’ 과정을 통해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반복하여 읽은 후 어머니 초경 경험과 자녀 초경 경험에서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내용에 대해 몰두하며 성찰하였다. 둘째, 어머니 경험의 본질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후 개념화한 뒤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자의 언어로 구조화시켰다. 셋째, 연구자의 언어로 구조화된 내용을 미학적 진술인 언어-예술(language-art)로 만든 뒤 핵심개념을 추출-종합하는 작업하였다(Kim & Kim, 2014).

3)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과정

발견적 해석은 체험의 구조를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연결 과정으로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position)과 개념적 통합(conceptual integration), 은유적 드러남(metaphorical emerging),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 단계이다(Kim & Kim, 2014). 구조적 전환과 개념적 통합은 재구성 체험을 높은 추상성 단계로 전환 후 ‘인간되어감 이론’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의

전체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에 연결하여 세부적인 경험의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세부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어머니의 경험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는 본 작업을 위하여 저자는 고양시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여성의 나이 들’에 관한 세미나에 4회 참석하였고, 여성 관련 인문학 강좌를 5회 온라인으로 수강했으며, 여성학 관련 서적과 정보를 찾고 탐색하였다. 은유적 드러남 과정을 위해 참여자 표현 중 어머니들의 재구성 체험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된 은유적 표현 58개 문장을 추출하였고, 현직 국어 정교사의 자문하에 대표성을 가지는 4개 문장을 선택하였다(Parse, 2011). 마지막으로 예술적 표현은 인간체험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참여자인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과 부합하는 예술적 표현을 찾기 위해 I 대학교 도서관에서 인문학적 문헌을 검색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1985)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신뢰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해 저자는 참여자들과 정기적인 연락 및 만남을 통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모든 인터뷰 내용을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 후 전사하였고, 분석 결과를 참여자 10인에게 보낸 뒤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잘 구성하는지에 대한 메일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적합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현재 학령후기 자녀초경을 경험하고 있거나, 또한 그 경험이 3년이 넘지 않은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보를 위해 연구의 진행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와 단계별로 논의하면서 연구를 진행 및 과정을 기록하였다. 넷째,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중립적 태도와 선입견방지(bracketing)를 위해 연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나 편견 등을 일지로 작성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제1저자는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을 수강하였고 간호학 관련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간호학회에 그 성과를 게재 및 발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25년간 재직하면서 학령후기 여학생들의 생리적 현상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에 이론적 민감성으로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교신저자는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교수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 수행한 질적 연구 결과물을 게재한 경험이 있다.

6. 윤리적 고려점

본 연구는 I 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심의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180514-1A). 인터뷰를 통해 녹음된 음성 파일은 전사 처리된 후 연구목적으로만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과정과 연구결과에서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IRB가 승인한 기간까지(3년간) 보관한 후 폐기될 예정이다.

III. 연구 결과

1. 15명 참여자 종합적 언어-예술

본 연구에 사용된 호칭은 참여자는 자녀의 초경을 경험한 어머니이며, 참여자의 딸은 자녀(딸)로, 참여자의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는 남편으로 참여자의 어머니는 어머니로 참여자의 아버지는 아버지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 ‘참여자 #1’의 초경 경험은 기다림이었다. 자녀의 초경 경험에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하였고, 뒷사람한테 배운 초경 뒤처리방법과 몸조심에 관한 당부를 자녀에게도 교육하면서도 참여자와 자녀의 생각이 달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었다.
- ‘참여자 #2’의 초경 경험은 당연함이었다. 초경을 시작한 자녀에 대해 말로는 축하하지만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 혼란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었다.
- ‘참여자 #3’의 초경 경험은 미숙하게 받아들임이다. 자녀에게 초경 교육을 했는데, 자녀가 생각보다 초경

처리를 잘해서 부듯함을 느끼는 과정이었다. 다만 자녀의 초경 시작 시기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정상발달 과정을 겪는 자녀를 보며 안도감이 드는 경험을 한다.

- ‘참여자 #4’의 초경 경험은 어머니한테 혼난 기억이다. 자녀 초경을 꽃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으나 자녀의 거절로 인해 참여자는 섭섭함을 느낀다. 초경으로 인해 멈춰버릴 자녀의 키(외모)와 혼전 성관계를 통한 임신에 대해 걱정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 ‘참여자 #5’의 초경 경험은 은밀하고 비밀스런 사건이다. 자녀의 초경을 자연스럽게 축하하면서도 혈이 새는 것과 성폭력 걱정을 한다. 그러나 의외로 자녀가 생리대 뒤처리를 잘 해서 나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되는 과정이다.
- ‘참여자 #6’의 초경 경험은 당황함이었다. 자녀의 초경 경험도 사전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당황하였다. 하지만 태연하게 행동했고, 자녀가 참여자 걱정보다 더 잘 대처하여 대견하게 생각하는 과정이다.
- ‘참여자 #7’은 초경에 대해 뚜렷한 기억이 없다. 자녀 초경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한다. 자녀의 신체는 성장했지만 정신은 미성숙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참여자와 자녀의 성교육 요구에 대해 다름을 느끼는 과정이다.
- ‘참여자 #8’의 초경 경험은 반가움과 설렘이다. 자녀가 여성으로서 출산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은 자녀 초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걱정)을 누르고 있는 과정이다.
- ‘참여자 #9’의 초경 경험은 당황함이다. 둘째 자녀가 먼저 초경을 시작해 많이 걱정했지만, 잘 받아들여 대견함을 느꼈다. 과거는 초경을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자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 참여자도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과정이다.
- ‘참여자 #10’의 초경 경험은 여자가 되었다는 안도감이다. 자녀가 초경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키가 안 자랄까 봐 많이 걱정했다. 자녀에 대해 성관계 조심, 혼전 임신 등 몸조심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 ‘참여자 #11’의 초경 경험은 당황함이다. 자녀의 초기 초경 경험으로 걱정이 많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몸조심에 관한 교육을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서 하는 과

- 정이다.
- ‘참여자 #12’와 자녀의 초경 경험은 자연스러움이다. 혼자 조용히 경험하던 생리를 자녀 초경 후 생리 기간과 양상, 생리통 등의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게 된 과정이다.
 - ‘참여자 #13’의 초경 경험은 수치심이다. 자녀가 아빠한테 축하받고 초경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부러움을 느꼈다. 자녀가 아빠의 관계보다 같은 여성인 자신과 생리 정보를 공유로 친밀해지는 과정이다.
 - ‘참여자 #14’의 초경 경험은 두려움이다. 자녀와 같은 여자로서 생리혈 처리 방법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 ‘참여자 #15’의 초경 경험은 행동의 제약으로 불편함이다. 자녀의 이른 초경으로 막막함과 절망감을 느끼

며 걱정이 많았고, 참여자 자신과 자녀의 생리로 인해 귀찮음과 짜증을 느껴 삶이 유쾌하지 않음을 느끼는 과정이다.

2.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참여자 15명’의 언어-예술에서 추출된 자녀의 초경 경험을 통한 어머니의 초경 경험 재구성의 핵심개념은 첫째,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함’, 둘째, ‘걱정의 마음을 축하한다는 말로 대신함’, 셋째, ‘몸조심에 관한 대를 이은 교육을 함’, 넷째,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과 세대 차로 인한 소외를 느낌’으로 나타났다(Table 2).

1)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함

참여자들은 본인의 초경 경험보다 자녀의 초경이 더

Table 2. The Process of Hermeneutic Phenomenology based on the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Core concept	Structural transposition	Conceptual integration
Experiencing an ambivalent feeling of pity and pride	Having double standard for late school-aged daughter	Transforming
Celebrating her instead of expressing concerns	Celebrating to cover up the concerns for a daughter	Revealing–Concealing
Giving a traditional lesson of protecting oneself to a new generation	Passing on to future generation as taught by the predecessors	Powering
Feeling empathy as a woman and also alienation due to generational gap	Experiencing homogeneity with a daughter as women and also generation gap	Connecting–Separating
Structure		
A mother hides her worries and congratulates her daughter instead on her first experience of menstruation amid feelings of both regret and pride. She teaches her daughter to protect herself as she was taught from her mother, but feels left out due to a generational gap with her daughter.		
Structural transposition		
A mother feels a double standard on female to her daughter and worries about her, but she hides her concerns and congratulates her. She teaches her daughter the education that she inherited from her predecessors due to her sense of homogeneity as a women, but feels a sense of alienation at the same time due to the change of generation.		
Conceptual integration		
A mother chooses an revealing-concealing pattern, and experiences a connecting-separating pattern in the process of powering her role as a mother when facing a transforming.		
Metaphorical emerging		
“Thought of my daughter as just a baby, but she suddenly grew bigger.”		
“As my child, I think she’s a shackler.”		
“There were two opposing minds inside of me.”		
“Felt happy together at the end of our periods.”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동안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훌쩍 커 버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평소엔 참여자 본인이 월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귀찮은 경험을 했고, 의지나 기분과 상관없이 초경이 시작되고 또 매달 해야 하는 월경을 체험했기에, 자녀의 초경 경험을 더욱 안쓰럽게 느낀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걱정과 다르게 초경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여자들은 대견함과 뿌듯함을 느낀다.

“음, 제가 할 때는 오히려 무덤덤했는데 딸이 하나쯤 되게 좋은 기분은 아니예요. 그냥 안타깝고.” (참여자가 #2)

“제가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열 개를 했으면 딸은 완벽하게 그녀가 열 개를 더 잘하는 거예요.” (참여자가 #3)

2) 걱정의 마음을 축하한다는 말로 대신함

참여자 마음은 초경을 맞이한 자녀가 걱정되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자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초경에 대해 쉬쉬했던 자신의 경험과는 달리 자녀의 성장을 알리고 축하해 주고 이와 같은 행동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란다. 참여자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꽃도 전달해주고 오빠나 남동생한테 초경의 시작을 알려주며 참여자의 자녀도 그런 축하를 기뻐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것보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아이들이 반감가지지 않게 축하한다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참여자가 #5)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oo(자녀 이름) 생리 시작 했어 꽃다발 줘 사와.” (참여자가 #6)

3) 몸조심에 관한 대를 이은 교육을 함

참여자들은 어머니로서 한 자녀 초경 교육은 대부분 어린 시절 자신이 부모님이나 언니, 이모 등 가족으로부터 받은 내용이었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선대로부터 교육을 받은 내용은 초경 처리에 대한 부분과 이른 성관계로 인한 혼전 임신 걱정과 성폭력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다시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교육되었다.

“여자가... 엄마도 항상 저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녀가 묻하지 않게 잘 다니라고...” (참여자가 #11)

“근데 너도 이제 아이가 아니니까 웃도 신경 쓰고 사

람도 조심해야 된다. 남자 조심해야 돼.” (참여자가 #1)

4) 같은 여성으로서의 공감과 세대 차로 인한 소외를 느낌

참여자들과 자녀는 초경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자녀와 공유한다. 이로써 사춘기가 시작된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녀와 가까워졌다고도 생각하였으나, 반대로 자녀는 월경과 관련하여 참여자보다는 친구들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세대 차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자녀가 인터넷으로 생리 관련한 최신 정보를 검색해보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대 간 정보격차를 느끼게 되고 자녀로부터 심리적 위축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여자로서 생리할 때 고통 같은 거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자로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이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가 #14)

“저는 이제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몰랐었던 거 같아요. 아직까지 나한테 속을 다이야기 안하는 거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숨기는 것도 있구나.” (참여자가 #1)

3. 구조적 전환과 개념적 통합

자녀의 초경 경험을 통한 어머니의 초경에 대한 재구성 체험의 구조는 ‘초경을 맞이한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과 대견함의 양가감정 속에 자녀를 위해 걱정을 감추고 축하하며, 같은 여성으로서의 공감으로 몸조심에 관한 대를 이은 교육을 하지만 세대의 변화로 소외를 느끼는 과정’이다. 이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자녀에 대해 어리지만 성숙함을 가진 이중적 여성상을 맞닥뜨리며 우려를 갖지만, 자녀를 위해 우려를 감추고 축하하며, 여성의 동질감으로 선대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후대에 전수하나 세대의 변화로 이질감을 느끼는 과정’이다. 이렇게 전환된 구조를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으로 분석해 보면, 자녀의 초경 경험을 통한 어머니의 초경에 대한 재구성 체험은 ‘익숙하거나 생소한 관점이 변화하는 변형성에 직면하여 노출-은폐 패턴을 선택하고, 어머니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연

결-분리 패턴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Table 2)

4. 은유적 드러남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해주는 참여자들의 언어에서 나타난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은유적 드러남은 각 주제별로 “마냥 그냥 애기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혹 커진 느낌(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함)”, “두 가지 마음이 대립이 생김(걱정의 마음을 축하한다는 말로 대신함)”, “내 자식이다 보니 족쇄라는 생각이 들(몸조심에 관한 대를 이은 교육을 함)”, “생리가 끝날 때 같이 행복해 짐(같은 여성으로서의 공감과 세대 차로 인한 소외를 느낌)”이었다.

5. 예술적 표현

김명이(2016)의 시집 <모자의 그늘> 중에서 ‘또 다른 삼경(三經)’은 자녀 초경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여성이 초경과 월경, 폐경을 겪어 내면서 새로운 시간의 역사성과 사실적 체험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시경 서경 역경이 사내의 중한 독서’라는 표현에서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분리된 사회상이 본 연구에서도 “감추고 숨겨야 하는 여자들만의 고통(참여자 #2)”, “아빠나 남동생한테 알릴 필요는 없어(참여자 #4)”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또 참여자의 “의외로 잘 대처 했고(참여자 #6)”, “잘 받아 드렸고(참여자 #9)”의 표현 역시 ‘초경과 월경 폐경을 겪어 낸 이가 있어’라는 표현과 연결된다. “저희 딸내미는 천 생리대를 꼬박꼬박 손빨래를 잘해요(참여자 #5)”, “아 이제 다 컸구나, 내 손아귀에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참여자 #7)”, “이제는 좀 성숙해진 여자(참여자#1)”의 진술은 자녀가 걱정과 다르게 잘 대처하기에 ‘여인이야말로 당대 최고 지성인’과 연결된다.

또 다른 삼경(三經)

시경 서경 역경이 사내의 중한 독서라 하고
니체는 피로 쓴 문학이라 하였으니
초경 월경 폐경을 겪어낸 이가 있어
그녀는 달의 몸을 받아

음력을 짓고 건사하는 동안

여인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리라.

김명이 <모자의 그늘> 중에서

6. ‘인간되어감 이론’에 기초한 해석학적 현상모형

이를 종합하여 학령후기 자녀의 초경 경험을 통한 어머니의 초경 경험 재구성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해석학적 현상학 관점은 ‘자신이 경험한 초경에서 창조된 가치를 자녀의 초경과 시대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자녀의 대처 반응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 참여자가 초경을 경험했을 때는 관습과 문화의 영향으로 초경의 사건은 비밀스럽고 은밀해야 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도 초경과 월경은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하고 스스로 몸조심을 해서 가족 중 이성인 구성원에게 초경이나 월경을 한다는 표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를 듣게 된다. 초경 처리에 관한 방법은 어머니나 이모 그리고 언니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언니로부터 잠재적, 명시적으로 알고 참여자가 좀 더 성장하여 중학생이 되어서 초경을 경험한 경우는 대부분 정보를 친구들로부터 얻게 된다. 참여자의 초경 경험은 그 시대의 관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되어, 생리혈이 새거나 남이 알게 되는 경우는 참여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자책도 한다.

반면 참여자는 결혼 후 자녀의 초경을 경험한 후에는 대대로 내려오던 관습과 문화의 영향은 점점 약해짐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는 세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녀의 반응과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몸조심에 관한 교육을 대를 이어 시키기도 한다. 자녀도 초경 시작 초기에는 참여자로부터 초경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지만, 곧 자녀들은 초경을 시작한 또래들과 학교의 성교육,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자원에서의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는 이런 정보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게 되면서 참여자도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에 참여자가 기존에 가졌던 초경에 대한 가치관과 여성의 삶에 대한 생각은 출산과 대를 잇는 도구적 차

원이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 숨기고 음식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변화된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자녀의 초경 경험을 통한 어머니의 초경 경험 재구성'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을 기반으로 수행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이다. 이 결과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은 '자신이 경험한 초경에서 창조된 가치를 자녀의 초경과 시대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자녀의 대처 반응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의 네 가지 핵심개념은 첫째,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함', 둘째, '걱정의 마음을 축하한다는 말로 대신함', 셋째, '몸조심에 관한 대를 이은 교육을 함', 넷째, '같은 여성으로서의 공감과 세대 차로 인한 소외를 느낌'으로 나타났으며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핵심개념인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함'에서 참여자는 본인의 초경 경험보다 자녀의 초경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동안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훌쩍 커 버린 느낌과 함께 앞으로 매달 월경을 겪어 내야 하는 여성으로서 바라보며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느낀다. 자녀의 초경 시작과 함께 자녀는 어머니와 일반적인 생활경험부터 초경과 그 후 경험하는 월경에 대한 태도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Weil, 2003). 동시에 자녀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되면서 매우 예민하고 외부영향에 민감해진다(Lee, 2000). 따라서 이 시기 자녀는 아직 보살핌이 필요하면서도 어머니가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녀 나름대로 현상을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Kim & Lee, 2005). 그렇기에 이 시기 어머니가 갖게 되는 자녀에 대한 이중적인 양가감정은 어떤 부분에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고 가르쳐줘야 하며, 어떤 부분이 자녀의 프라이버시라서 혼자 할 수 있게 믿어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 대부분(78.3%)은 자녀와 관련하여 부모 대상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Jo, Lim & Choi, 2018), 본 연구참여자와 역시 자녀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역할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보아 체계적인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둘째, 핵심개념인 '걱정의 마음을 축하한다는 말로 대신함'에서 참여자는 마음속으로는 초경을 맞이한 자녀가 걱정되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자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초경에 대해 쉬쉬했던 자신의 경험과는 달리 자녀의 성장을 알리고 축하해주고 싶어 하였고 이와 같은 반응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는 경험들로 미루어 볼 때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는 초경이나 월경에 대해 대를 이어줄 출산과 관련한 가치를 부여하였다(Woo, 1996). 하지만 점차 여성의 교육과 인권이 향상 및 증진됨에 따라 월경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Kim, Park, Kim, Rhee & Doh, 2017). 1999년 9월 2일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자 제1회 월경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10월 20일 초경의 날이 제정되었고, 2018년 1월 18일 김보람 감독의 피의 연대기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인류 절반이 경험하고 있지만 아무도 공공연하게 소리 내어 말하지 않는 초경 및 월경과 관련한 터부에 대해 다양한 담론을 펼치게 된다. Kim과 Yoo (2009)에 따르면, 자녀의 초경 정서와 월경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월경의 태도는 일상의 성 건강과 연관이 있는 바, 초경 시작 전후 초경 과정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참여자와 가족의 축하를 받는 자녀는 긍정적인 초경 정서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핵심개념인 '몸조심에 관한 대를 이은 교육을 함'에서 참여자는 선대로부터 받은 초경 교육내용을 자녀한테도 하고 있었다. 이는 초경 교육은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기에 월경에 대한 생각은 어머니에서 딸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녀한테 전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ho & Moon, 2012). 또한, 어머니의 교육은 그 선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선대 시절의 교육에는 그 세대의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있기에 초경 처리와 순결, 건전한 이성교제와 같은 훈시적 내용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Kauder-Nalebuff,

2011). 자녀는 초경이 시작되면 어머니에게 먼저 알리게 어머니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교육자이고 가장 많은 정보제공자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자로 여겨진다(Kang, 2018). 또한 자녀의 초경 경험 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보살핌은 여성으로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고리가 되며(Moon, 2005) 이런 관계에서 하는 교육은 어머니는 자녀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2000). 이에, 어머니의 초경 교육이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 정서를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된 교육이 중요하다(Kim & Kwon, 2005). 이와 같은 학교-부모연계 프로그램은 부모 양쪽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가 있는 바(Lee, Yu & Cho, 2011),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핵심개념 '같은 여성으로서의 공감과 세대차로 인한 소외를 느낌'에서 참여자들과 자녀는 초경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여성으로서의 공통의 경험을 공감한다. 모성 경험은 어머니와 자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확장되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im, Park, Kim, Rhee & Doh, 20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녀가 초경 후 자녀는 생리대 종류, 구매처, 사용 후 느낌과 같은 월경과 관련한 정보를 어머니와 공유하게 되지만, 또한 자녀는 인터넷으로 생리대 종류나 구입처를 검색해봄으로써 참여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 급격한 정보화로 인한 가정 내 부모-자녀의 큰 정보격차는 대화의 단절 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Park & Park, 2009), 지역사회와 학교의 학부모 교육 시 부모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한 교육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회복과 관계증진에 기여할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의 초경을 경험한 참여자 15명의 재구성 체험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자녀 초경을 경험하는 어머니들의 재구성 체험은 '자신이 경험한 초경에서 창조된 가치를 자녀의 초경과 시대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자녀의 대처

반응에 따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이론적 의의로서 본 연구는 자녀의 초경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체험과 관련한 간호 지식체계를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을 확장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간호 교육적 의의로서 본 연구는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에게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를 걸친 여성의 신체 현상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관습과 문화 및 변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마지막 간호실무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간호사와 학교 보건교사들이 학부모를 직접적 교육대상자 및 학생을 위한 2차 교육자로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재구성 체험을 위해 지역사회 간호사와 학교 보건교사는 지지하고 공감하는 간호의 역량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령후기 자녀의 초경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체험에 대한 Parse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세대 간 문화가 더욱 상이한 한국 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자녀의 초경 경험과 어머니의 재구성 체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역시 Parse의 이론과 연구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자녀 초경을 앞둔 어머니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o, H. N., & Moon, S. H. (2012).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 menstruation in elementary school girl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menarche.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8(4), 302-311. <https://doi.org/10.4069/kjwhn.2012.18.4.302>
- Cho, Y. S., Kim, J. H., Lee, G. S., & Woo, J. K. (2001).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upper grade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4(2). 213-235.
- Eum, J. S. (2004). Effects of a parent-involvement sex education program for high primary-school grad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8(1).143-153.
- Guba, E. G., & Lincoln, Y. S.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CA): Sage.
- Ha, S. H., & Chung, H. J.(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amily-of-origin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2). 789-806.
https://doi.org/10.15703/kjc.9.2.200806.789
- Hong, K. J., Kim, H. W., & Ahn, H. Y. (2008). Menstrual attitudes and maternal child rearing attitude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5). 748-757.
https://doi.org/10.4040/jkan.2008.38.5.748
- Jo, M. J., Lim, K. J., & Choi, E. J. (2018). Influencing factors of marital intimacy and sexual knowledge on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on child sexu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2). 181-193.
https://doi.org/10.5932/JKPHN.2018.32.2.181
- Kang, M. W. (2018). A study on sexuality education that mothers provide to their girls first menstrual period ahead. *Catholic Institute of Bioethics*. 8(1). 46-67.
- Kauder-Nalebuff, R. (2011). *My little red book*. Park, S.Y. Seoul: Bookie press.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5). 11th *Korea youth statistics*. (No. 11758). Cheongju-si: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Kim, A. Y., Park, B. K., Kim, S. J., Rhee, S. H., & Doh, H. S. (2017).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parenthood of mothers with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8). 161-193.
https://doi.org/10.21509/kjys.2017.08.24.8.161
- Kim, D. Y. (2016). Discussion with the issue of national level of school sexual education standard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1(1). 1-23.
- Kim, H. W., & Kwon, M. K. (2005). A study of menstru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1(2). 148-155.
https://doi.org/10.4069/kjwhn.2005.11.2.148
- Kim, M. H., & Yoo, I. Y. (2009). Knowledge of menstruation, emotional reaction to menarche,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and coping behavior among Korean prim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1).64-72.
https://doi.org/10.4069/kjwhn.2009.15.1.64
- Kim, S. S., & Kim, S. J. (2014).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s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A parse's research method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3). 186-197.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3.186
- Kim, Y. J. ,& Lee, C. S. (2005). The effects of parents' sexual education on adolescents' sexual behavior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2(2). 250-268.
- Kwon, J. S., & Park, S. H. (2019). Adaptation to transition: Meaning of menarche for female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9(4). 520-538.
https://doi.org/10.1177/0272431618770816
- Lee, J. H., Yu, H. K., & Cho, Y. S.(2011). The Development of a parents-involved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sexual-consciousness i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The Korea Journal of Youth*

- Counseling*. 19(2). 47-64.
<https://doi.org/10.35151/kyci.2011.19.2.003>
- Lee, M. N. (2000). An educational study on resocializing adults at the entrance level of mid-life. *Theory and Research on Citizenship Education*. 30. 217-258.
- Lee, M. R. (2012) Differences in early adolescent girls' daily life experiences depending on levels of menarch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121-139.
- Lim, J. H., & Kim, J. H. (2013). Mother's experience of having a girl with precocious puberty.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17(2).23-34.
- Moon, J. I. (2005). *A study on the meaning of menarche of premenarcheal elementary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Noh, J. E. (1995).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menstruation and the cultural taboos. *Women's Studies Review*. 12(1). 367-380.
- Park, W. K., & Park, Y.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self-efficacy and internet digital divide: Focused on parents-childre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2). 395-417.
- Parse, R. R., Lee, Y. J., Lee, J. S., & Go, M. S. (2002).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Seoul: Hyunmoonsa.
- Parse, R. R. (2008). The human becoming leading-following model. *Nursing Science Quarterly*. 21(4). 369-375.
<https://doi.org/10.1177/0894318408323492>
- Parse, R. R. (2011). The hu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Refinements. *Nursing Science Quarterly*. 24(1). 11-15.
<https://doi.org/10.1177/0894318410389066>
- Sung, M. R. (2006).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emotion, attitude and coping method of menarche experience of some elementary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Weil, W. M. (2003). *The mother daughter relational context of menarche and subsequ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University, California.
- Woo, J. H. (1996). *Qualitative study on menstruation perceived by pre-menarcheal adolescent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ABSTRACT

Understanding the reconstruction experiences of mothers through their child's menarcheal experiences by using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Kwon, Jinsook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ark, Sihy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Ham, Okky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Sohn, Mi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Lee, Eun J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Lee, Jaeyeon (Teacher, Sejong Jangyoungsil High Schoo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construction experience of mothers who had recently experienced a late-school age daughter's menarche by utilizing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Data were collected using purposive and snowball sampling methods to recruit the mothers of elementary fifth- and sixth-grade girls recently experiencing menarch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rse's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the mothers' experiences appeared as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menarche-related values created by themselves by facing the child's menarche experiences and related responses along with the change of era." The key concepts of their construction experiences of the mothers were "experiencing an ambivalent feeling of pity and pride," "celebrating her instead of expressing concerns," "giving a traditional lesson of protecting oneself to a new generation," and "feeling empathy as a woman and also alienation due to the generational gap." These findings reveal the important roles and competencies of community and school nurses in terms of achieving a healthy and positive reconstruction experience for mothers and their daughter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mothers who are about to encounter their daughters' menarche.

Key words : menarche, qualitative research, emotional adjustment, mother-child relations, women